“이주여성들, 힘든 한국살이 연극으로 말해요” 극단 샐러드

글 · **김미영** kimmy@hani.co.kr

지난달 16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성일교회 3층 연습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훈훈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국적도, 나이도, 피부색도 다른 이주여성인 수웡, 김계화, 다시마, 서열마, 류리연 씨가 연출가 김병균 씨와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연극 연습에 몰두하고 있었다.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아, 맞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사를 하면 되나요?”

이들은 이틀 후에 있을 ‘대한민국 여성축제’ 초청공연을 앞두고 연극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도전기」 연습에 한창이었다. 명절음식 차리기, 한국예절 배우기, 학교급식 자원봉사 경험기, 자녀 소풍 이야기 등 이주여성들이 일상에서 겪는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담았다. 한국말은 서툴고 어색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은 넘쳐났고, 자세와 표정만큼은 그 누구보다 진지했다. 배우의 꿈을 이뤘다는 성취감, 자신들의 값진 땀방울이 한국에 사는 이주여성들의 처지를 알리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뿌듯함 때문이다.

“한국에서 배우가 될지 몰랐다”

“중국 연길에서 음악사범대를 졸업한 뒤 음악교사로 일했어요. 한국에 와서 전공을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 못했어요.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척 재밌어요. 보람도 있고요. 우리의 연극이 이주여성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김계화)

“한국에 오기 전부터 연기에 대한 관심이 원래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전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재밌으면서도 힘들고. 연출가의 요구처럼 못할 때는 속상해서 울곤 하지만 계속할 거예요. 한국의 이주여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고 싶어요.”(다시마)

“언어, 문화, 습관, 성격이 다른 여러 사람이 함께 하려니까 힘들어요. 하지만 이주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주여성도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류리연)

이날 연습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강행군으로 이어졌다. 마무리 연습이 끝난 뒤에도 “마이가 뭐야?” “정장은 위아래가 같은 거고…” 등등 연극에 쓰일 의상과 소품 준비상황을 챙기느라 분주했다. 그리고 이들은 집이 아닌 소품을 사기 위해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들은 모두 이주여성들이 만든 극단 샐러드 소속 배우들이다. 극단 샐러드는 인터넷을 통해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샐러드TV의 박경주 대표가 주도해 창단했다. 2년 전부터 “이주여성들이 한국에서도 자신의 재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보자”고 맘먹었던 박 대표의 소박한 꿈을 고스란히 담았다. 그는 “창단 초기만 해도 ‘이주여성들이 얼마나 하겠어?’ 우려가 있었지만 반응이 생각보다 좋다”며 “내년에는 대학로에도 진출하고, 뮤지컬에도 도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순화 단장

단장부터 배우까지 모두 이주여성

극단 샐러드의 단장 역시 이주여성이다. 중국 하얼빈 출신인 안순화(44)씨가 그 주인공. 그는 2003년, 2년 연애 끝에 결혼한 남편을 따라 한국에 왔다. 한창 엄마 품을 찾을 때인 6살 난 아이를 두고 있지만, "다문화 가정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될 것 같아" 박 대표의 제안을 듣고 흔쾌히 단장 직을 수락했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서 3년 넘게 통 · 번역 상담일을 했던 그가 안정적인 직장을 버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전화 상담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다.

"의외로 이주여성의 남편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에 소극적이었어요. 또한 전화로만 상담을 하니, 서로를 100%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전화 상담만으로 이주여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았죠. 연극을 통해 이주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어려움, 남편과 이웃에게 느끼는 소외감을 더 절절하게 표현해 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걸 본 남편들, 이웃주민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극단 샐러드의 본격적인 활동은 지난 1월 첫 워크숍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애초 20명 남짓 모였지만, 육아문제, 가족의 반대 등 형편 때문에 떨어져 나간 이들이 많다. 가정주부라는 한계 탓이다. 결국 4차례에 걸친 오디션을 거치며, 현재 7개 나라에서 온 10명의 이주여성 단원이 의기투합했다. 이날 연습에 참여한 배우들 외에 주예심(터키), 쟈스민(필리핀), 이레샤(스리랑카) 등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여성들이 극단 배우로 활동하면서 얻는 가장 큰 수확은 자신감이다. 수웡은 "소극적인 성격이라 처음엔 어색하고 발성도 잘 안됐다"며 "자신감을 얻은 게 무엇보다 좋다"고 말했다. 왕언니인 서열마는 "다리가 불편해 무대에 오르고 사람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정말 자신감이 없었다"며 "그만두겠다고 여러 번 마음먹었지만 지금은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게 됐고, 행복해졌다"며 웃었다.

첫 정기공연 〈맛있는 레시피〉 성공적으로 마무리

극단 샐러드는 창단 8개월 만에 첫 정기공연도 무사히 끝냈다. 지난 9월 성미산 마을극장에서 4일 동안 진행한 첫 정기공연 〈맛있는 레시피, 애프터 더 레인〉이 그것이다. 빠른 시간에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 작품은 세계 공통 문화인 음식을 소재로 그 안에 이주여성의 현실을 담았다. 폐업 위기에 처한 식당에서 일하던 이주여성들이 식당을 인수하기 위해 벌이는 분투기다. 대본은 배우들이 직접 썼다. 연출자였던 김병균 씨는 "이주여성들을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무언가 도움을 줘야 할 복지수혜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일반적인 시각의 틀을 넘고자 했다"며 "극중 이주여성들이 만들어가는 식당은, 이주여성이 아닌 여성 한 명의 능력으로 자기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희망의 싹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이들이 살아온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와 장면을 만들고, 대본을 쓸 무렵만 해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지 않았다. 무척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이었다. 배우들은 발성과 호흡 등 기본부터 배워야 했다.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대본 작성과 연극 연습을 병행하는 강행군이었다.

"7월부터 공연 시작까지 석 달 동안 하루 6시간씩 맹훈련을 했어요. 단원들이 이주여성인 탓에 말도 어눌하고, 문화적 차이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우리의 공통 목표를 위해 눈물을 쏟고 또 쏟으며 최선을 다한 결과죠."(안순화 단장)

연습 과정에서 이들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타향에서의 외로움과 서러움도 함께 털어냈다. 몽골에서 온 서열마(38)씨는 처음에는 몇 번이나 울며 포기하려 했지만, 지금은 "자신감이 생겼다"며 누구보다 기뻐한다고 한다. 베트남 출신 수웡(27)씨는 처음에 대사 톤이 너무 작아 염려했는데, 지금은 힘이 넘쳐난다. 주예심(29)씨는 "한국 생활 3년 동안 내내 외로웠다"며 "하지만 연극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단원 모두가 한 가족이 됐다. 연기를 하면서 아이에게도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첫 공연을 끝낸 뒤 이들은 서로를 부둥켜안고 그동안 쌓인 설움과 성공을 이뤄낸 기쁨을 눈물로 쏟아냈다. 무엇보다 큰 성과는 남편과 자녀를 비롯한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남편이 곁에서 든든하게 지켜주고 지지해주지 않았다면 결코 이뤄내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도 가족들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어요."(안순화 단장)

내년 대학로 무대 진출…뮤지컬 도전도

극단 샐러드의 도전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올해 말까지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등을 도는 순회공연이 예정돼 있다. 이달에는 추가로 배우를 더 선발할 계획이며, 내년 봄 꿈의 무대인 대학로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 연기뿐 아니라 노래와 춤에 재능과 끼가 있는 이주여성들을 별도로 선발해 정기공연팀 외에 소공연팀도 꾸릴 생각이다.

박경주 대표

연습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에는 훈훈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연극뿐 아니라 뮤지컬 장르로의 도전도 고민하고 있다.

안 단장은 "재밌으면서도 다문화 교육에 도움이 되는 연극을 하고 싶다"며 "앞으로 여느 극단과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극단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2009년 현재, 국내의 남녀 결혼이민자 숫자는 17만여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6만 명에 달한다. 이른바 '다문화 가정'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더 이상 다문화 가정과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가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들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무엇보다 소중한 때다. "그냥 저희를 내 가족, 내 이웃으로 봐줬으면 좋겠어요."(안순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행보가 더욱 궁금하다. 극단 샐러드는 앞으로 다문화 가정의 현실을 알리기 위해, 한국의 다른 가정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리기 위해 그들을 찾는 곳이면 언제든지 달려갈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주여성이 한국에서 가질 수 있는 직업은 기껏해야 서비스업이나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 이주여성이 문화예술 활동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극단 샐러드는 그 이유만으로 값지고 귀중한 존재다. 그렇지만 연극계가 그렇듯 경제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궁핍하다. 현재로서는 극단의 수입보다는 지출이 더 많은 상태다.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후원 : SC제일은행 150-20-207487(예금주 : 샐러드 박경주) 문의 : 02-2254-0517

글 **김미영** | 〈한겨레〉 기자
사진제공 | 극단 샐러드